

2008 새해실례 ⑨

포천시시설채소연합회 회장 원성숙

친환경 살충·살균제 사용 무농약 채소 생산

포천시 시금치 생산량 전국 1위 ... 특화품목으로 지정해 달라



“그동안 채소농가들이 발표되지 않은 생축분으로 인한 악취, 파리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 민원의 소지가 되게 하고 산성토양과 염류집적으로 토양은 나빠지고 화학농약, 화학비료과 다 생축분 사용으로 안전한 채소를 생산하지 못한 환경이었다. 그러나 이제 교육과 생가의 전환으로 유기질 비료와 유기농자재(친환경 살충·살균제)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고품질 무농약과 유기질 비료로 유기농 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가에 대한 보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포천시시설채소연합회 원성숙(사진) 회장은 “최근 시설채소농가들이 항상 걱정해오던 농약처리 방식의 획기적인 개선대책이 나왔으나 농가마다 예산부족으로 유기농자재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포천시가 시설채소를 포천시 특산물로 지정해 유기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가락동 농산물시장에서 농산물 출하장계를 보면 포천시는 시금치 출하 전국 1위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만큼 포천의 시금치는 농산물물결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따라서 포천시가 사과, 포도, 버섯 등을 특산물로 지정해 지원하듯이 시설채소도 특산물로 지정해 지원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2007년도에 포천시 시설채소농가 대상으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 결과 7건이 집계돼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아 국민건강에도 좋지 않아 친환경자재 사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기존 농약가격보다 7~8배가 비싸 사용에 임무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유기농산물의 단지화를

추진하고 이 단지내 농가를 대상으로 유기농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천시시설채소연합회는 오는 6월9일 알뜰시장을 열어 수익금 전액을 불우이웃을 돕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신선한 채소를 지역주민들에게 싼 값에 공급하고 그 수익금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한다는 것이다. 또 매년 산정호수 역사꽃축제에도 장터를 개설하여 수익금 전액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고 있다.

시설채소연합회는 현재 224명의 회원이 시금치, 배추, 알갈미, 파, 옥수수, 오이, 참나물 다양한 야채를 1년에 6회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원 회장은 “지난해 한 마을가족 체육행사에 여러 가지를 협찬해주신 관내 7개 단위를 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하기도 했다.

포천신문에 바라는 사항은 그동안 여러 가지로 시설채소연합회 활동을 보도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란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향교 축계 석전대제 봉행

유림과 지역주민 참석 포천향교에서

포천시 근내면 구음리에 위치한 포천향교에서 5월11일 유림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춘계 석전대제'를 봉행했다.

석전대제는 공자를 모신 사당인 문묘에서 지내는 제사로써 '석전'이란 제(祭)를 놓고 폐(幣)를 올린다(奠)는 데서 유래했다.

원래는 산천(山川), 묘사(廟祀), 선성(先聖: 공자 739년에 문선왕으로 추정됨) 등 여러 제향에서 이석전이라는 말이 사용됐으나 다른 제사는 모두 사라지고 오직 문묘의 석전만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문묘 제향을 뜻하는 것으로 축소됐다.

포천향교는 고려 명종3년(1441)

에 창건됐는데,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선조 27년(1594)에 중건했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으로 다시 파괴돼 1982년에 중수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주요 건물은 대성전, 명륜당, 동재, 서재, 내·외삼문 등이 있으며 1983년 9월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 16호로 지정됐다.

현재 석전대제는 성군과 대성전에 이 공자를 위신한 중국5성과 송조4현 및 우리나라의 유학자 설총, 최치원, 정몽주 등 18인의 위패를 모셔놓고 봄, 가을로 매년 2차례 거행하고 있으며 지방에서는 향교에서 주관한다.

하승환 기자 forme64@paran.com



포천시 자치행정과 국제교류팀 소속 직원이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서 주관한 외국어스피치 대회에서 최우수 및 우수상을 수상했다.

포천시 공무원 외국어스피치대회 전국 최고

이지영 중국어 우수상 강문주 불어 최우수 수상

포천시 자치행정과 국제교류팀 소속 직원이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서 주관한 외국어스피치 대회에서 최우수 및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외국어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지난 9일 국제화재단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외국어스피치 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에서 자치행정과 행정7급 이지영 직원이 중국어 부문에서 우수상을, 행정9급 강문주 직원이 불어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전에는 같은 부서 세무7급 김은희 직원이 중국어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어 포천시 국제교류부서 직원들이 2년

연속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김은희 직원은 중국 남경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이지영 직원은 포천시와 국제자매도시인 중국 회복시에서 교환공무원으로 8개월간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강문주 직원은 대학에서 불문학을 전공한 재원이다.

이들은 평소 외국어를 꾸준히 공부해 오늘의 영광을 차지했으며 재단에서는 부상으로 수상자들에게 해외배낭연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강문주 자치행정과장은 수상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 포천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승환 기자 forme64@paran.com

영북 상인회, 상가활성화 앞장

5월31일 운천 중앙로 차 없는 거리 캠페인·공연행사

영북면 상인회(회장 성낙원)는 최근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말에 외부로 유출되는 군부대 인력을 확보하며 주민들의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 오는 5월31일 운천 중앙로에서 차 없는 거리 캠페인 및 공연무대를 마련한다.

5월31일을 전후하여 차 없는 거리를 유도하고 대형소를 실시한 후 5월31일 오후3시부터 5시까지 페이스 페인팅, 풍선아

트 등 행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5시부터 7시까지 퉁타 공연, 사물놀이, 풍물놀이, 스포츠댄스 등 공연을 할 예정이다.

이날 주민들의 호응에 따라 지역의 기관, 단체와 연계하여 매일 정기적으로 행사를 실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김미경 주부명예기자단 부단장 hsd5333@hanmail.net

목회 단상



사랑의 법



김창성 내촌침례교회 목사

어떤 젊은 부부가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 법원에 이혼을 신청하기 위해서 찾아 왔다. 그리고 그는 아이의 부양 문제와 위자료료를 놓고 서로 싸우고 있었다. 서류를 살펴본 판사는 두 부부를 바라보면서 물었다. “아이의 누가 책임지고 키울 거요?”

둘 다 대답이 없었다. 그래서 판사는 옆에 서 있는 아이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하고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나 아이는 한 손으로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또 한 손으로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울먹거렸다.

“아빠랑 엄마랑 다 함께 살고 싶어요!”

그 소리를 듣고 판사는 재판 일정을 한 달간 연기하기로 했다. 그리고는 자기가 보던 성경

책을 그들에게 건네주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하루에 세 번씩 한 달 동안 도합 100번을 읽어 오라고 말했다.

집에 돌아온 그들은 고린도전서 13장을 매일 읽는 가운데 자신에게 사랑이 부족했던 사실을 깨닫고 뉘우치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혼 소송을 취소하게 되었다.

그렇다 사랑이 있으면 그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되는 법이다. 사랑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놓인 죄의 장벽까지도 허물어뜨린다. 마찬가지로 사랑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불화의 반목과 갈등도 제거시킨다. 사랑이 있는 곳에 화해와 화목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해도 내 맘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이 있어도 아무소용이 없으며, 산을 옮길만한 믿음이

이 있어도 내 있는 것 줄 지라도 나 대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애 사랑은 영원하네”(내가 천사의 말한다 해도/제임스 스티븐스 곡)

조금의 어긋남으로 가정을 너무도 빨리, 너무도 쉽게 상실해 버리는 요즘 세상에서 사랑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평안을 준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본받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사랑의 계절에 우리에게 성서는 이렇게 교훈 하신다.

고린도전서 13장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다”

문의) 031-532-2489

포천시 시설직 공무원 23명 학문의 길 열어

대진대학교 계약학과 설치 協約체결식 가져

포천시는 5월13일 대진대학교 국제세미나실에서 심재인 시장권한대행, 이천수 대진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 계약학과 예비학생인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진대학교와 계약학과 설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2008년 2학기부터 시 시설직 공무원 23명이 3학년에 편입하게 된다.

심재인 시장권한대행은 “그간 각종 대학 평가에서 우수 대학으로 선정되고 미래 발전가능성 부문에서 최우수 대학교로 평가받은 대진대학교와 포천시의 계약학과 협약식 체결을 계기로 한층 더 전문화되고 능동적인 공무원이 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학과 설치 협약을 계기로 “앞으로도 관내 대학교의 우수한 인적, 학술적, 기술적 노하우와 공무원의 직무 역량을 결합시켜



포천시는 5월13일 대진대학교 국제세미나실에서 심재인 시장권한대행, 이천수 대진대학교 총장 대진대학교와 계약학과 설치 협약을 체결했다.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6년근 개성인삼 가공산업 활성화 기대

개성인삼 가공시설 증설사업 기공식 가져

포천시는 5월15일 일동면 기산리에서 개성인삼 가공공장 기공식을 가졌다.

이번 기공식은 김광준 경제농정국장과 김인수 개성인삼농협 조합장 등 인삼 관련 각계 인사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지역 특산품인 6년근 개성인삼의 가공산업 활성화의 일환인 개성인삼 가공시설 증설사업의 본격적인 착수에 앞서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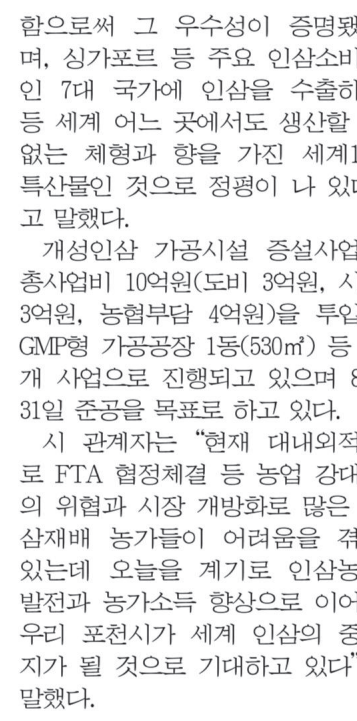
김광준 경제농정국장은 “포천의 6년근 개성인삼은 수삼부분 국내 최초 품질인증 및 ISO 9001을 획득

함으로써 그 우수성이 증명됐으며, 싱가포르 등 주요 인삼소비국인 7대 국가에 인삼을 수출하는 등 세계 어느 곳에서도 생산할 수 없는 체형과 향을 가진 세계1등 특산물인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말했다.

개성인삼 가공시설 증설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도비 3억원, 시비 3억원, 농협부담 4억원)을 투입해 GMP형 가공공장 1동(530㎡) 등 11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8월 31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대내외적으로 FTA 협정체결 등 농업 강대국의 위협과 시장 개방화로 많은 인삼재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오늘을 계기로 인삼농업 발전과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져 우리 포천시가 세계 인삼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시는 5월15일 일동면 기산리에서 개성인삼 가공공장 기공식을 가졌다.

꽃묘 생산으로 아름다운 꽃길 조성

포천시농업기술센터, 12만본 꽃묘 자체 생산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규)는 1차 팬지 8만본, 2차 금계국 8만본 분양에 이어 19일부터 3, 4차 백일홍 8만본, 매리골드 12만본 꽃묘를 자체 생산에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시 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40만본의 꽃묘 등을 생산해 국도변과 시내 가로변의 화단에 심어 주민 정서순화와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해 왔다.

센터는 이를 위해 공정육묘장 및 4연동 자동화시설을 설치해 팬지와

매리골드 등 꽃묘 40만본을 생산해 14개 읍면동에 비롯해 경찰서, 소방서 등 기관단체에 무료로 공급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꽃묘를 자체 생산해 공급함으로써 시민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담고 정감있는 지역을 꾸미기 위해 더 다양하고 많은 꽃묘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우량묘의 생산과 다년생 속근초 등의 다양한 화종을 자체 대량 생산해 주요 관공지와 도로변



포천시 농업기술센터는 1차 팬지 8만본, 2차 금계국 8만본 분양에 이어 19일부터 3, 4차 백일홍 8만본, 매리골드 12만본 꽃묘를 자체 생산해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효과를 거두고 있다.

등에 식재해 주민들의 휴식공간 및 자연친화적인 도시 경관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포천시 근내면 구음리에 위치한 포천향교에서 5월11일 유림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춘계 석전대제'를 봉행했다.

등산객들이 편안하게 등반위해

영중면 주민자치위원회, 관모봉 등산로 정비

영중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광덕)는 5월16일 금주산 출기인 관모봉(冠帽峯) 등산로를 정비했다. 이번 정비는 지난 2007년 관모봉 등산로 이정표 설치에 이은 후속 작업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관모봉 등산로 중 위험한 구역 약 200m에 걸쳐 등산객들이 안전하게 등산할 수 있도록 로프줄을 설치하고, 등산로 잡목을 제거했다. 또한 오르막이 힘든 곳에 돌계단을 설치해 등산객들이 편하게 등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정비한 산행코스는 영중면 암문3리(옛골)에서 출발해 영중면과 일동면, 이동면의 경치를 조망할 수 있는 관모봉에 올랐다가 양문공단 뒤(독지골) 또는 성동리(파주골), 일동면 수입리 방향으로 하산하는 코스이다.

김광덕 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회는 앞으로도 관모봉을 등반하는 등산객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등산로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많은 등산객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관모봉을 오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영중면 주민자치위원회는 5월16일 금주산 출기인 관모봉(冠帽峯) 등산로를 정비했다.

영중면 주민자치위원회는 5월16일 금주산 출기인 관모봉(冠帽峯) 등산로를 정비했다.